



國內消息

韓一病院 古里分院 開院

放射線 事故時의 應急醫療對策갖춰

韓一病院 古里分院 開院式이 5月29日 現地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開院式을 가진 韓一病院 古里分院은 古里原子力본부 사택단지내에 총건평 462坪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었는데, 醫師 3名, 看護員 2名, 行政要員 6名이晝夜로 근무하며, X-Ray촬영기, 수술대, 임상병리시험기재, 구급차등 醫療시설의 완비와 입원실,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다.

韓一病院 古里分院은, 古里原子力發電所1號機를 건설, 운영함과 더불어 原子力 發電施設이 1987년까지는 古里와 月城등 인접지역에서 6基에 500여萬KW나 확장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 이들 發電地域에서 돌발적인 放射能 被曝事故에 대비하는 治療및 豫放施設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放射線事故시 緊急의로대책으로서 應急的인 醫療措置를 하며, 從事者에 대한 保健豫防및 醫療管理를 담당하고, 벽지 종사자와 家族에 대한 一般診療로서 건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醫療惠澤을 주는 데 目的이 있다.

에너지 管理公團 발족

代替에너지 개발업무등 수행

에너지 管理公團이 7月5日오전 柳陽洙 동자부장관, 金容今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水雲會館에서 懸板式을 갖고 발족했다.

에너지 管理公團은 6月30日 발효된 에너지 利用 合理化法에 따라 韓國熱管理協會를 확대개편 설립한 것이다.

에너지 管理公團은 우선 올해안에 30억원의 에너지 利用합리화자금으로 에너지 利用 기술지도, 代替에너지 개발업무등을 수행하게 되며 오는 86년까지 연차적으로 5천억원의 자금을 조성, 熱병합발전과 지역난방등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發電所 建設 韓電 直營으로

政府. 外國一括都給방식 止陽

政府는 外國一括都給(턴키 베이스)방식에 의한 發電所建設을 止揚, 韓電直營방식으로 發電所를 建設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美國, 日本, 프랑스, 西独등 先進國으로부터 發電所 建設및 조업에 관한 본격적인 技術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動資部및 韓電에 따르면 韓電의 民間株 매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82년부터 公社로 운영케 됨에 따라 경영전반을 쇄신키로 하고 1차로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技術을 必要로 하는 發電所 건설사업부터 지금까지의 턴키방식을 止揚, 韓電자체에서 直營토록 함으로써 경비절감은 물론 기술축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政府는 또 石油에 의존해 온 發電연료를 다원화시키기 위해 ▲平澤火力1, 2, 5, 6號機 ▲湖南火力1, 2號機 ▲서울火力4, 5號機 ▲仁川火力1, 2, 3, 4號機등을 LPG 또는 LNG를 연료로하는 가스發電所로 改造해나가기로 하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石炭가스화 프로젝트에 관한 대책도 協議토록했다.

政府는 또 既着工된 原子力發電所의 建設 추진을 위해 美輸出入銀行과 原電2號機등의 追加차관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政府는 이밖에도 기존 發電所에서 타르 샌드(重質 石油 또는 黑色石油로 보통 4~10%의 타르를 함유하는 砂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의 E&Z社에 관계자 3名을 추가로 파견했으며 81年初까지 이의 利用可

性能 및 도입시기·도입可能量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韓電은 非油類발전소의 早期준공 및 발전연료의 다원화, 가스발전소의 신규건설 및 改造, 무연탄소비증대 등으로 發電연료의 油類依存度를 80년에는 82.2%에서 78.2%로, 85년에는 51.1%에서 38.9%로 각각 줄이고 80년부터 85년까지 6年동안 총BC油소요량 3억 5천 4백배럴중 16.7%인 5천 9백만배럴을 절감시킬 計劃이다.

石油依存度 91年엔 41.5%로

原電比重 51.5%로 增大

政府는 불안정한 國內의 에너지수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79年末 現在 64.4%에 달하고 있는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오는 91년까지는 41.5%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산업구조를 低에너지소비형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柳陽洙동자부장관은 韓國能率協會 조찬회에서 「석유사정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인들은 國內수요석유의 57%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柳장관은 또 정부는 이같이 석유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신규석유발전소 건설을 억제, 석유발전비중을 80년의 74.9%에서 91년에는 9.3% 축소하고 原子力發電 비중을 80년 11%에서 91년 51.5%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柳장관은 또 금년의 석유수입대금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돼 최초석유도입 연도인 64年 1천 2백만달러보다 무려 5백배가 늘어났으며 이는 금년도 GNP의 10%, 총수출액의 35%, 총수입액의 27%에 해당돼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柳장관은 또 태양열주택 보급을 촉진, 오는 2천년까지는 태양열주택을 신축주택의 30%선까지 확대하고 주요에너지 자원의 비축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現場設計用役 契約

KNE 原電 5·6號機 12억규모

韓國原子力技術(株) (社長 車宗熙)는 韓電발주 原電 5, 6號機 現場設計 및 技術用役을 수의계약했다.

韓國原子力技術(株)이 수의계약케 된 이用役의 총사업비는 12억 8천 3백 75만원으로 用役內容은 현장관련부서와의 技術的 업무 협조를 비롯, 現場設計作成, 수정 및 각종 자료검토등 建設과정에서 發生하는 技術的 문제를 解決하는 한편 각종자재 시험을 81年 6月末까지 遂行하는 것이다.

在美科學者 초청 學術大會

12개 分科別로 討議

第7次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 종합학술대회가 7月14일 하오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식을 가진데 이어 12日동안 서울대학교와 忠南대덕연구단지에서 계속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美國에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86명의 우리 과학기술자와 國內과학기술자가 참석, 컴퓨터를 비롯 12개분과로 나뉘어 워크샵 형식으로 학술토론을 벌였다.

학술대회는 15, 16日 이틀동안 서울大 冠岳캠퍼스에서 「80年代 韓國과학교육의 과제」를, 17, 18日 양일간에는 大德 연구단지로 내려가 「80年代의 에너지문제」라는 특별주제에 관한 종합토론과 주제발표가 있었고 19日부터는 浦項製鐵, 昌原工團과 같은 산업시찰, 國內의 각 연구소 등을 돌아보았다. 첫날 개최식을 겸한 특별강연에서 崔亨燮 과학원장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은 결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종합연구소로서 KIST가 설립되었으며 大德에 전문연구단지, 10여개의 전문연구소가 설립돼 경제발전을 측면지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崔원장은 정부가 앞으로 과



國內消息

학기술 투자를 대폭 늘리고 민간 부문도 연구소를 크게 증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능동적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종합토론을 벌인 12개분과는 ▲수학통계 ▲전산 오퍼레이션·리서치(OR) ▲물리학 ▲농학·식품공학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생명과학 ▲재료공학·금속공학 ▲기계·산업공학 및 우주과학 ▲전자·전기·통신 ▲건설·환경 ▲자원·에너지 ▲과학과 사회 등이다.

原電 國産化率 18.7%

KNE 96년 이후 터빈38%, 核爐 32.6%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 社長 車宗熙)는 오는 96년 이후 建設되는 原子力 發電所 建設機資材의 國産化率이 부문별 평균가중치로 따져 18.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KNE가 추정한 연도별 및 부문별 機資材의 國産化 추정치를 보면 現在44.3%에 불과한 原子爐계통기자재의 國産化율은 오는 91년에 29.4%, 96년에는 32.6%에 이르며 금년에 國産化율이 14.4%에 지나지 않는 터빈발전기는 91년에 37%, 96년에 38.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타 전기는 91년과 96년 6.3%, 動力부문은 96년에 4.4%, 토건부문도 15.7

%에 불과해 가중평균치로 따질 때, 오는 96년의 原子力發電所 機資材의 國産化率은 18%線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같은 國産化율은 최근 들어 정부의 기자재 國産化정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소들마저 연구인력과 연구비부족으로 제대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 달성은 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

美 G.E. 原電 기술 교류 넓혀

BWR방식 發電所建設 희망

美제너럴·일렉트릭(G·E)社의 에이·필립·브레이 原子力 發電담당 부사장은 韓國의 原子力산업발전을 돕기위해 이 회사의 原子力技術 교환을 확대하고 비등수형 原子爐(BWR)방식의 原子力發電所가 建設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레이 부사장은 제한기간 중 정부 당국자와 相關산업계 인사들을 만나 原子力산업에 關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 韓國에서 집중적으로 建設되고 있는 가압수형 原子爐(PWR)와 GE가 채택하고 있는 비등수형 原子爐(BWR)가 근본적으로 같은 방식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으며 韓國도 이제 BWR방식의 原子爐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하면서 韓國의 原子力産業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原子力頭腦 60餘名：原研

機資材 國産化에 큰 진전

최근 과학기술처 조사에 따르면 國립公營 연구기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은 1백36개에 달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은 총 4천 8백여명인데 이 중 原子力研究所가 박사급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原子力機資材 國産化 生産에 큰

전전을 보이고 있으며 30여종의 동위원소를 생산공급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原子力研究所, 原子力技術基準등

資料目錄集을 발간

韓國原子力研究所(所長 車宗熙)는 원자력산업육성에 꼭 필요한 資料 1만여건을 담은 原子力 關係技術基準 및 標準規格資料 目錄集을 발간, 相關연구기관과 산업체가 使用토록 했다.

이 目錄集은 國內에서 처음 펴낸 것으로 原子力發電所用 機資材제작에 큰 도움을 주는 지침서로 활용된다.

錦山에 大單位 우라늄原鑛

15m 두께 鑛層 찾아

錦山지역에 대단위 우라늄鑛이 새로 발견됐다. 이 우라늄鑛은 두께가 최고 15m에 이르고 있어 매장량이 상당히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資源開發研究所가 밝혔다.

동력자원부에 의하면 자원개발연구소는 그동안 原子力發電所의 잇따른 建設에 소요되는 핵연료의 장기안정공급기반의 하나로 國內 우라늄탐사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0.04% 品位의 우라늄原鑛(U_3O_8) 3천 1백 5만t을 찾아낸데 이어 이번에 錦山지역에서 品位 0.04%짜리 우라늄原鑛을 다시 發見했다.

자원개발연구소는 금년에 우라늄 시추사업 대상지역으로 錦山지역을 선정하고 이곳에 16개孔 8천 2백m를 시추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초부터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6月末 現在 연 3천 4백 65m를 시추, 이중 15개孔에서 鑛層이 15m에 이르는 풍부한 매장량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라늄鑛을 발견한 것이다.

자원개발연구소는 경기도 加平, 忠北 鎭川, 경북 平海등지에서도 우라늄부존을 확

인, 精査조사를 실시키로 한데 이어 전 국토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우라늄부존 가능지역에 대한 광역탐사를 제 5차 經濟개발계획 기간중에 모두 끝낼 계획이다.

韓國技術開發會社

설립키로

技術분야 金融支援업무 전담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성과의 企業化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技術開發 자금지원 제도로써 기술분야 금융지원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인 가칭 「韓國技術開發(株)」을 설립키로 했다.

科技處가 마련, 經濟장관 협의회에서 결정된 「韓國技術開發(株)」는 민간출자를 주축으로 민간 90억원, 정부 60억원등 1백 50억원 규모의 자금과 약 5천만~8천만달러의 世界銀行차관 및 정부의 장기저리융자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韓國技術開發(株) 법과 세계은행차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기술근박장기저이자금을 용자, 연구결과와 기업화투자·특허 및 노하우시설의 알선·상담대행과 연구 시험기기의 대서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80年代 기업주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하나의 큰 계기가 마련됐다.

韓電民間株 내년에 전량買入

政府 2백60억으로 2백60만株

정부는 내년에 2백60억원을 들여 韓國電力의 민간주 2백60만株를 전량 買入 키로 했다.

動資部에 따르면 韓國電力의 公社改편 계획과 相關, 韓電株의 94%인 4억 5천 9백 40만株(4천 5백 94억원)를 매입했는데 오는 9月 정기국회에 韓電公社法을 제출키 위한



國內消息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電電力公社는 오는 82년에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에 따라 쏘그레아社は 오는 8月부터 내년 10月까지 15個月동안 忠南 瑞山郡 加露林灣에 대한 地點조사를 비롯, 설비용량, 토목 구조물 등을 검토,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基本設計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韓電 기술자 5名에 대한 6個月간의 기술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加露林灣은 최대 潮差 7.9m, 潮池면적 1백 20km², 防潮堤길이 2.1km로서 설비용량 4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유리한 후보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편 韓電은 이 用役조사결과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오는 82年 6月에 본공사를 착공, 88年 12月에 준공할 계획이다.

韓國, 石油消費增加率 경제성장을 앞서

先進國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石油 소비가 오히려 감소한데 비해 韓國은 經濟成長率보다 석유소비증가율이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당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공업의 경우 생산액 1천달러當 에너지 소비량이 韓國 1천 5백91kg(석유기준), 美國 1천72kg, 日本 1천 1백 3kg, 프랑스 6백47kg, 西獨 5백46kg으로 韓國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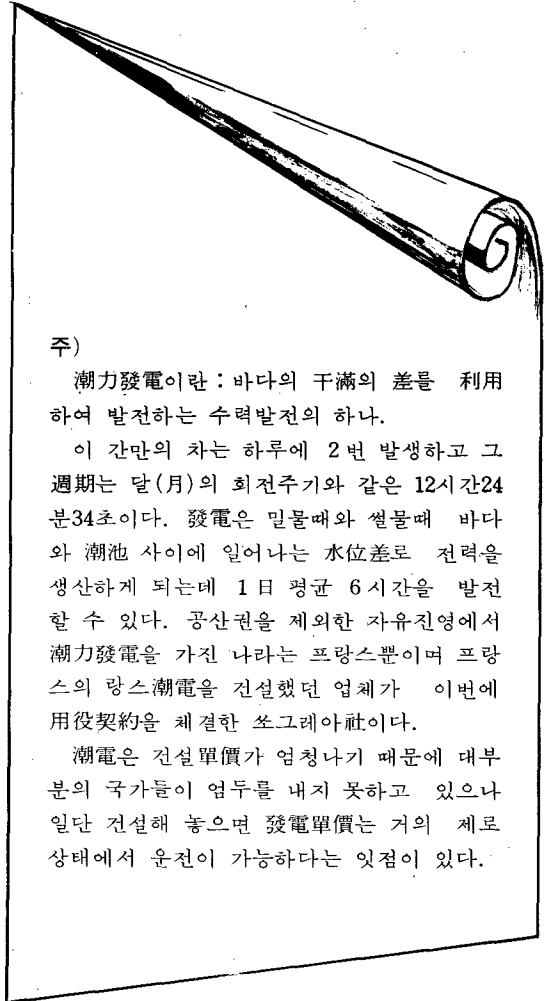
이같은 석유소비증가율은 韓國의 산업구조가 에너지多消費型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熱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加露林 潮電建設 妥當性조사 契約

韓電, 佛 쏘그레아社간, 用役費 18억에

國內최초의 潮力發電所建設을 위한 妥當性조사 用役契約이 韓電과 프랑스의 쏘그레아社 사이에 체결됐다.

用役費 17억 9천만원으로 체결된 이 계약



주)
潮力發電이란 : 바다의 干滿의 差를 利用하여 발전하는 수력발전의 하나.

이 간만의 차는 하루에 2번 발생하고 그 週期는 달(月)의 회전주기와 같은 12시간 24분 34초이다. 發電은 밀물때와 썰물때 바다와 潮池 사이에 일어나는 水位差로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1日 평균 6시간을 발전할 수 있다. 公産권을 제외한 자유진영에서 潮力發電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뿐이며 프랑스의 랑스潮電을 건설했던 업체가 이번에 用役契約을 체결한 쏘그레아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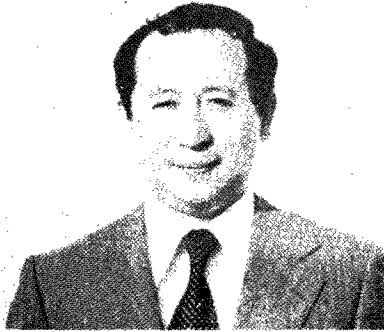
潮電은 건설單價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일단 건설해 놓으면 發電單價는 거의 제로 상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原子力상임위원회

朴肯植박사 임명

政府는 8月7日 原子力위원회 상임위원회에 朴肯植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朴肯植상임위원은 54年 서울大문리대 화학과를 나와 졸업 學界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66年 벨기에의 캔트大學에서 생화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70년부터 울산工大 교수로 있으면서 英國 브리티시 카운슬의 초청교환교수를 지냈으며 75年 科技處로 옮겨 기술심서관, 안전심서관, 기술개발국장 등을 역임했다.



原子力 協力 論議

伊通商使節 맞아

崔東奎 동력자원부차관은 8月5日 이탈리아 데리오·지아코메티 통상차관이 이끄는 경제사절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협의했다.

이날 요담에서 이탈리아측은 韓國의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측은 이에 대해 韓電으로 하여금 原子力爐계통이 아닌 터빈발전기 계통의 입찰 참여의 길을 검토케 하겠다고 밝혔다.

지아코메티단장은 이날 이탈리아의 GI社가 原電9, 10號機 입찰에 참여할 자격부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崔차관은 이탈리아가 韓國의 기준爐型인 PWR이 아닌 BW-R만을 제작하기 때문에 原子力爐입찰에는 참가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古里研修院. 科技處長官

지정교육기관 승인

精神·技術教育으로 有能한

原子力人양성

韓電 古里原子力本部 研修院이 6月30日 科學技術處長官지정 교육기관으로 승인되었다.

古里研修院은 모든 原子力分野 종사자들에게 투철한 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수행하여 유능한 原子力人을 양성하기 위해 77年 7月 경남 양산군 장안면 길천리 3,273坪의 부지위에 研修院 건물을 신축하고, 78年 3月 原子力전문교육장으로 발족된 후 79年 10月 15日 原子力 研修院으로 확대개편되어 이번에 科技處長官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종래 原子力 操縱士 및 操縱監督者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原子力 研究所에서 10주 이상의 교육을 必해야만 했던 어려움이 古里原子力 研修院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Simulator設備, VTR-System 및 視聽覺 教育機資材, 160여명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 등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古里 研修院은 이미 78년에 236名, 79년에 424名을 教育시켰다.

古里研修院의 教育과정은 ① 신입 원자력 요원반과정 5주, ② 발전소 운전요원반과정 29주, ③ 발전소 운전요원 재교육반과정 8주, ④ 면허소지자 재교육반과정 2주, ⑤ 면허시험 대비반과정 4주, ⑥ 기성 원자력 요원반과정 4주, ⑦ 보수요원반과정 4주, ⑧ 일반교육과정 1일, ⑨ OJT교육과정 등



國內消息

로 나뉘는 데, 原子力發電所 運轉要員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소 운전요원반과정은 原子力發電 기초이론 10주, 原子力發電所 계통 교육 10주, Simulator계통교육 2주, Simulator운전교육 8주, 도합 29주의 教育을 받게 된다.

2級기능사 學歷제한 撤廢키로

科技処 내년부터 全面施行

政府는 지금까지 學歷을 중시해 왔던 國家技術資格制度의 응시자격중 學歷제한을 대폭 완화, 내년부터 現場기술경험과 능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래 실업고교 졸업자나 공공직업훈련이나 1年以上의 社内훈련을 받은 기능인들만이 應試할 수 있었던 기능사 2급의 應試資格을 現場경험이 있는 기능인은 누구나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改訂, 내년부터 全面 施行할 방침이며 기사 2급자격은 현재 기능사 1급, 또는 전문대졸업생들만이 應試할 수 있었던 것을 실업고교졸업, 또는 기능사 2급자격 취득후 일정기간 이상 현장경험을 가진 기능인들이 응시할 수 있게 대폭 수정, 學歷이 없는 기능인이라도 기술계의 최고자격인 기술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成佐慶 과기처장관은 「75年이후 기술계 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들에게 義務的으로

실시해 왔던 義務檢定은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을 고려, 撤廢하고 산업계 進出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히고 「실업고교졸업자에 대한 의무 검정의 철폐 여부는 가까운 시일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개선안은 現在 技術職公務員에게 주어왔던 檢定試驗 과목면제등 특혜를 폐지하고 7백58종의 기술자격 종목과 시험 과목(2천4백7 과목)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80년대 고도산업 국가건설에 필요한 우수 기술 기능 인력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이 개선방안으로 학력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능사 2급 응시자는 지난해 63만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韓國建業, 가봉 우라늄鑛 시추

가봉의 우라늄鑛 開發에 국내업체가 진출, 試鑛를 받게됐다.

韓國建業엔지니어링은 가봉의 노노르레우 우라늄鑛 시추사업을 위한 國際入札에 낙찰되어 오는 10月부터 來年 7月까지 시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가봉의 노르레우 우라늄鑛은 原子力發電의 연료용인 우라늄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韓電이 가봉과 프랑스의 코제마祉와 공동으로 지난 3月 계약을 체결, 공동개발을 시작한 곳이다.

韓國, 核擴散 禁止條約會議

副議長國으로 피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第2次 核擴散 禁止條約 批准國 평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東아시아지역을 代表하는 副議長國으로 피선됐다.

이 회의의 副議長國은 각지역별로 선출됐

는 데 아시아에서는 韓國 등 5 個國, 西歐圈에서는 美國 등 6 個國 등 모두 26 個國이 피선됐다.

韓電. 工專大에 위탁교육

韓國電力은 계속 建設될 原子力發電所 운영에 必要한 原子力技術要員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公業전문대학 위탁교육제를 채택, 이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韓電은 이를위해 내년도 예산에 5천4백만원을 확보, 재직직원 20명과 首都電氣工高졸업생 30명 등 50명에 대한 原電技術教育을 울산工大 등에 위탁키로 하고 82년에는 위탁인원을 81년의 2배인 1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首都電氣工高는 韓電이 중견기술 요원의 확보를 위해 지난 78년 3월에 설립한 학교로 내년에 제 1기 졸업생 3백명을 배출한다.

제네바 武器 非擴散 條約 會議에

代表團 7名 파견

政府는 8月 11일부터 9月 5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核武器非擴散條約 당사국 제 2차 평가회의에 盧信永 駐제네바 代表部대사를 수석으로 하고 외무부 및 科技處관계관 7名으로 구성되는 代表團을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약은 지난 68년 워싱턴에서 채택돼 70년 발효됐

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75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평가회의 이후 5년간 핵무기비확산 조약의 이행상태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 同從約의 運用방향을 논의하게 되는 데 우리 대표단은 조약의 기본정신 및 목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리 安保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發電설비「大宇」·乘用車「現代」

重化學 投資조정, 一元化단행

정부는 現代自動車와 새한自動車를 통합하여 現代그룹에, 發電設備과 建設重裝備産業을 통합하여 大宇그룹에 각각 맡기기로 했다.

소형승용차 생산은 現在의 現代·새한·起亞의 3元化 체제에서 現代와 새한을 통합 現代그룹이 전담하도록 一元化하고 起亞産業은 5톤이하 트럭전문생산업체로 남게 됐다.

發電設備 부문은 現代洋行의 昌原종합기계공장(軍浦중장비공장포함)과 大宇의 玉浦종합기계공단을 1개 法人으로 통합 大宇그룹이 경영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런 투자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昌原종합기계공장에 투자한 2백20억원(産銀 1백70억원, 外換銀 50억원)은 회수하지 않고 계속 출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發電設備업체중 三星重工業에 대해선 산업용 보일러만을 生産하도록 했다.

- 활판인쇄
- 옴셋인쇄
- 사무용품
- 도안·편집

成 河 印 刷 社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1-19
☎ 267-2937, 267-3408